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에...다시 치솟은 ‘소비자물가’

물가 상승률 광주 5.8%·전남 6.1%...광주 석달만에 상승폭 확대
도시가스 광주 35.7%·전남 34.5%↑...공공요금 20% 넘게 상승
전남 외식물가 4개월 연속 전국 최고...소주·맥주 높은 상승률 기록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석달 만에 다시 커지고, 전남은 석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 갔지만 연고점이었던 7월 상승률에는 못 미쳤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한풀 꺾였지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를 재차 끌어올렸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5.8%·전남 6.1%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7%로 집계됐다. 광주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6%에서 8월 5.8%, 9월 5.6% 등으로 줄더니 지난달 5.8%로 상승 폭을 기웠다. 전남은 7월 7.3%→8월 6.6%→9월 6.3%→10월 6.1%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6%

대 고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10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은 광주 23.7%·전남 20.8% 오르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두 지역 전기료는 전년보다 18.6% 올랐고, 도시가스 요금은 광주 35.7%·전남 34.5% 인상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달부터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올라갔고,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인상됐다. 상품·서비스 등 다른 분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나 영업용 가스의 경우 이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공업제품 물가는 광주 6.0%·전남 7.0% 올랐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광주 5.9%·전남 6.7%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광주 8.2%·전남 4.5% 올랐는데, 광주는 전국 평균 상승률(5.2%)을 크게 웃돌았다. 석유류 상승세는 전달보다 완화했지만, 경유와 등유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광주 8.6%·전남 14.8% 올랐다. 휘발유값이 전년보다 광주 2.0%·전남 1.1% 내렸지만, 경유는 광주 23.2%·전남 23.7% 뛰었다. 겨울철 난방용 기름으로 쓰이는 등유는 광주 58.3%·전남 68.2% 급등했다. 전남 외식물가는 지난달 10% 가까이 치솟았고, 6달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 8.2%·전남 9.8%로 나타났다. 광주 외식물가 상승 폭은 두 달 연속 감소 추세이며,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 두 지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외식 품목은 소주(광주 18.9%·전남 19.2%)와 맥주(광주 15.9%·전남 18.0%)였다. 외식 품목 39개 가운데 지난달 광주는 36개, 전남은 39개 가격이 올랐다. 특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광주에서 18개, 전남에서 19개 있었다. 자방면 가격이 광주 12.9%·전남 11.4% 올랐고, 라면도 광주 12.2%·전남 12.0% 인상됐다.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 가격 상승률은 100%가 넘고, 배춧값도 광주 99.5%·전남 71.9% 전년보다 많이 뛰었다. 양파(광주 29.0%·전남 33.1%)와 파(광주 19.7%·전남 8.4%), 명태(광주 19.7%·전남 9.6%)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당국은 이후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오르는 것을 막아달라 예상하면서 ‘7월 물가 정점’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고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 기간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장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김장재료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권을 지원하며, 겨울철 수요가 많은 명태와 고등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딸감, 가공육·육수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 윤의준·오른쪽 네 번째)가 지난 1일 나주시 동수동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공용장비센터 개소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컨텍 제공>

켄텍, 공용장비센터 개소...지역 기업에 개방

국내 첫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설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나주 혁신산단에 공용장비센터를 열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연구 장비를 갖췄다. 윤의준 총장과 오상호 센터장 등은 지난 1일 나주시 동수동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 특화기술 시험동에서 공용장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곳 장비는 연구기관과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일부 유료)할 수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연구에 쓰일 세계 최고 수준의 구면수차보정 주사투과전자현미경(STEM)과 X선 회절분석기(XRD), X선 광전

자분광기(XPS),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등이 마련된다. 특히 STEM은 국내에서는 처음, 세계 세 번째로 설치된다. 대학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첨단분석장비 45종을 오는 2027년까지 420억원을 들여 마련할 방침이다. 센터 사용 문의는 이날 중 개설하는 공용장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번 공용장비센터 개소는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첨단분석장비 확보에 노력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협력사 채용박람회

103곳 참여...15일까지 진행
삼성전자는 2일 협력사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2022 삼성전자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협력회사 채용박람회를 열어왔다. 이번 행사에는 대덕전자, 엘오티베움, 인탑스, 신흥정밀, 히로세코리아, 동진세미켄,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드림텍, 솔루엠, 솔브레인, 피에스케이 등 삼성전자의 우수 협력회사 103곳이 참여했다. 대덕전자와 원익아이피에스, 피에스케이 등은 첫째 행사부터 참여해 연구개발, 기술, 설비 직무의 신입사원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장철 배추 값 하락에도 양념채소는 비싸

4인가족 김장 전통시장 36만원
정부, 김장재료 비축물량 공급
올해 김장철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지지 만 양파, 대파 등 양념채소 가격은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출하량이 1년 전보다 11.8%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은 10kg(상품) 기준 7000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평년(6674원)과 유사하고 1년 전(9822원)과 비교하면 28.7% 저렴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다음 달에는 배추 출하량이 늘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12월 배추 도매가격은 10kg당 5655원, 지난해에는 7895원이었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에는 10kg에 1만1146원으로 지난해(5821원)의 2배에 달했다. 배추 가격이 높아 김치 수입량은 지난달 1~20일 1만778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9%, 평년 대비 10.5%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가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상순 1만7090원에서 하순 7600원으로 떨어졌다. 가을배추 주산지인 호남지역 배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10.4% 늘어난 126만7000t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김장 재료인 무의 경우 이달 20kg에 1만1500원으로 1년 전 수준(1만1492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평년(9727원)과 비교하면 18.2% 비싸다. 또 다음 달 무 도매가격은 지난해

와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연구원은 양념채소 가격은 지난해 김장철보다 비싼 편이 된다고 예측했다. 올해 고추 생육이 부진해 이달 견고도 도매가격은 600g(화건 상품)에 1만3000원으로 1년 전 1만1205원보다 16.0% 오른다고 내다봤다. 양파의 경우 이달 kg에 상품 기준 1500원으로 1년 전(892원)의 1.7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파 역시 출하량이 줄면서 이달 도매가격이 kg당 1850원으로 1년 전 1604원과 비교해 15.3% 오른다고 내다봤고 깎마늘은 kg당 8100원으로 1년 전 8178원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마늘, 고추, 양파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자 이달부터 앞서 비축물량 1만t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마늘의 경우 비축물량 5000t을 깎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견고추는 매주 500t 정도씩 총 1400t을 내보내는 한편, 양파는 매주 240~500t씩 총 3600t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물가협회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6대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15가지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해보니 지난해와 비교해 대형마트는 12.7%, 전통시장은 1.4% 각각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사면 4인 가족 기준 평균 36만450원, 대형마트에서는 47만3090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3.8% 저렴하다. 배추 16포기 기준 전국 평균가격은 전통시장 7만4600원으로 작년보다 9.2% 하락한 반면 대형마트는 6만3750원으로 25.7%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h3>장성토지 매매 (분양)</h3>		<h3>경매교육 [기초반]</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p>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p>		<p>*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td> <td>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td> <td>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td> <td>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td> </tr> <tr> <td>서구 매월동 (임야) ▶</td> <td>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공정) ▶</td> <td>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td> </tr> <tr> <td>서구 매월동 (빌라) ▶</td> <td>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td> </tr> <tr> <td>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td> <td>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td> <td>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h2>010-6670-9800</h2>		<h2>010-2614-9801</h2>																	